



정 현 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내기

**요**즘 신문에 기리기 가족에 대한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과거에도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살았다. 중동지역에 수많은 근로자가 파견 나갔으며, 자식이 군대, 유학 등의 이유로,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타지역 발령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떨어져 살았으나 최근의 기리기 가족은 부부가 자녀학업을 위해 장기간 떨어져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물리적인 분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들조차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에 의한 남편의 부재뿐만 아니라 학업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어 이제는 모광고처럼 인너넷을 통해서만 아이들과 대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은 좋은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가족은 인간관계에서 연속성을 제공한다. 일단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자녀를 낳으면, 더 나은 가족 생활을 위해 더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평생 계속된다. 또한 가족은 서로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나 대화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필요

가 없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나 자매가 바로 내 옆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성이 협동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게 되어 가족의 유대를 형성한다. 무엇보다 가족이 좋은 점은 오래 지속되는 친밀한 관계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족만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가장 어려웠을 때나 가장 좋았을 때, 이해심이 있는 경우나 반대의 경우도 가족들은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지켜보게 된다. 이런 관계는 내가 다른 사람과 적응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의 많은 좋은 점들은 아무 노력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만일을 위해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 가족이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써 가족 공동체 의식, 가족 유대감이라는 이자를 받고 가족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증가하는 이혼과 가족의 소외는 가족이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분

## 가사일 분담해보기

☞ 다음의 여러 종류의 가사일 중에서 현재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 보자. 중요한 가사일이 빠졌는지 가족이 함께 이야기해보자.

☞ 남편, 아내, 자녀가 각각 앞으로 이 일을 했으면 하는 사람을 적고 내용을 비교하여 이야기해보자.

가사일 종류	현재 주로 일을 하는 사람	앞으로 이 일을 했으면 하는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장보기				
빨래 널기				
다림질				
빨래그대로 개기				
식사준비				
설거지				
집안청소				
가구, 옷 정리				
집안손질 및 보수				
은행일 처리				
자녀들 숙제 봐주기				
자녀훈육하기				
이불정리				
자녀 학교 방문				
쓰레기 버리기				

리되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계획하는 것도 포함된다. 식사 같이하기, 외출 함께하기, 휴가 함께 가기, 장같이 보기, 시간을 같이 보낼 계획세우기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들과는 노래방에 가도 부부가 함께, 혹은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는 아이들 때문에 결혼 후 극장 한번 못 갔다는 부부들도 많다.

기러기 가족들도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 교육을 마치고 부부들이 다시 만나 적응에 어려워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해왔고, 개인의 삶의 패턴을 어느 정도 정립한 부부들이 다시 함께 새롭게 적응하는 것은 신혼기보다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결정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장

래를 위한 일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십여 년만 지나면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난다. 늙어서 등 굽어 줄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부부이다. 일상적 대화만을 하고 최소한의 시간 보내기만을 하는 수 많은 부부들이 정년퇴직 후 남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방황하는 것도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가족에, 부부간에 관심 있는 행동을 해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가사일도 분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계획도 짜보고, 좀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하고, 부인, 남편, 혹은 자녀의 차이를 인정해보자. 그러면 어느 틈에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나에게 앞으로의 삶에 비타민이 될 것이다. 위의 표를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가사일 분담부터 시작해보자. 대화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PPPK**